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골4:2-6) 8/24/2025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누었다.

그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들이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아들이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소속이 흑암의 나라에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골1:13-14).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고, 그 분이 주신 생명의 비밀이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골2:2-3). 이 축복이 영성, 영적 써밋의 축복이다. 이 축복으로 우리는 300%에 도전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도우시면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골3:4). 그 분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더 이상 세상에 어둠은 없고, 우리는 그 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쓰여질 것이다(계22:5). 그 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이다.

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다(2절).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영세 전에 감추인 비밀로 오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 고, 도우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고, 축복이다.

1)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축복이 기도이다(그것이 마6장의 주기도)

 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① 예수님 자신이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무엇을 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먼저 기도하셨다(막1:35).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는 따로 남아 기도하셨다(마14:22-23),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눅22:44).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기도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다.

②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를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요14:12, 요16:24)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

 이 기도가 나의 우선권이 되고, 이 기도를 누린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하나님의 작품)

③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헬라어(proskartereō) 단어는 적어도 세가지를 가르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하며, 헌신하라는 것이다(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Devote").

 사단은 우리 기도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며 기도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기도가 체질이 된다. 건강의 축복, 경제 축복도 결국 그 축복을 누릴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헌신하라는 단어는 기도보다 더 큰 헌신이 없다는 뜻이다. 지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비밀도 기도다.

2)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와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자꾸 체험해야 한다(요11:40-41).

② 이 축복을 누리다보면 응답받은 것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받을 응답을 기다리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다.

 그래 절기를 지킬 때에도 받은 축복만 아니라 받을 축복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고 했다(신16:15).

③ 나중에는 모든 문제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다(살전5:16-18).

 결국 이 감사의 기도 속에서 나의 내면이 치유되고, 참된 평안이 임하면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빌4:6-7)

2.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3절).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나의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야 한다. 전도와 선교는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셔야 하는 절대 이유와 결론이다(행1:8)

1)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를 전도와 선교로 삼으라.

① 나의 학업, 기능, 산업의 목표를 전도와 선교로 삼으라. 4차, 5차 산업 혁명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다.

 5절에 불신자들과 살면서도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춘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② 나의 가정, 자녀, 교회의 목표도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라.

 내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도록 훈련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처럼 높일 것이다(써밋 스쿨의 이유이고, 목표)

③ 특히 선교는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꾼다.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18세기를 움직인 주역의 나라가 된 비밀이다.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이 19-20세기를 이끈 주역이 된 비밀이다. 가난하고 비참했던 한국을 축복해 21세기의 선교를 이끄는 국가로 세운 비밀이다.

2)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①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축복해 경제도 지원했고, 에바브라 같은 좋은 일군을 바울을 돕는 자로 보내기도 했다.

 전쟁터에 가는 군인만큼 중요한 것이 뒤에서 물자와 양식, 격려하는 국민들이 중요한 것과 같다.

② 그것과 함께 중요한 지원인 기도를 부탁을 했다. 매일 선교지를 위한 기도에 헌신해보라.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선교지에 파수꾼을 세우고, 시공간 초월로 일하신다고 했다(사62:6-7)

3) 미래의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① TCK나 미국의 렘넌트 중에서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할 미래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와야 한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집중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다. TCK를 아들과 딸로 삼아 미래 선교사로 키워보라.

② 렘넌트 대학교가 중요한 이유도 이것이다. 특히 제3세계에 훈련된 목사나 선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현지인들을 장학금으로 공부시키는 이유다.

결론-우리는 흑암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최고의 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그 분을 깊이 누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응답받고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한다